월요광장

희망, 함께 가는 길 위에서 보인다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어떤 것을 희망하는 것은 사람의 많은 능력 중에서도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사람만이 희망할 줄 알고, 이 희망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간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희망이란 단어처럼 종잡기 어려운 것도 드물다. 희망은 틀림없이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을 견디고 더 노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동시에 희망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변하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니체는 희망을 '악'이며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희망하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희망이 가혹한 '고문'이 될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고통을 이겨 내야 할 의미와 이유가 없다.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강하게 한다. 그러나 희망이 단순히 강박적 습관이거나 게으른 기다림에 불과하다면, 희망은 절망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희망을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작가 루쉰의 말을 빌어서 희망을 생각해 본다. 그는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희망을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1881~1936)은 '광인일기', '아큐정전'을 쓴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이고 동시에 사상가이자 개혁가이다. 루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오늘의 중국을 세운 혁명가 마오쩌둥의 말일 것이다. 그는 루쉰을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이며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평가했다. 실제 마오쩌둥이 루쉰을 흠모하며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루쉰의 글을 늘 읽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희망은 아직 나지 않은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루쉰의 생각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연하게 본 사진 한 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변화하는 세상과는 달리 무기력한 잠에 깊게 빠진 중국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큰 충격에 빠진 루쉰은 낡은 사상과 정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행동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다. 행동하기보다는 구경꾼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쉬운 것도 사실이다. 루쉰이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것도 팔짱 끼고 살아가는 '구경꾼' 때문이었다. 구경꾼의 특징은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마저도 마치 남의 일처럼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다. 무기력한 구경꾼은 마치 희망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구경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면 희망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 때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까지 돌아선 상황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경험을 루쉰은 그 유명한 '적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쳐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 혼자 있는 적막함 말이다. 힘을 보태 주는 지지는커녕 반대조차 없는, 오직 냉랭한 무관심만이 사방에 가득한 상태가 적막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막막한 적막을 경험한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어지간해서는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급한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해결할 때까지 구경하며 기다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결국 적막함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이다.

희망이 곧 삶을 지켜 내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희망은 어리석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일까? 아무도 희망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가 보지 않은 길을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쉰은 친구와 함께 '철로 만들어진 출구도 창문도 없는 방'에서 잠이 든 사람들에 빗대어 희망을 묻는다. 잠이 든 사람들을 깨울 것인가? 자게 그냥 둬야 할 것인가? 친구는 "그래도 기왕 몇몇이라도 깨어났다면 '철방'을 부술 희망이 절대 없다고 할 수야 없겠지"라고 답한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다. 아무것도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이 '어쩌면'에서 희망은 시작된다. 한 사람도 철방을 부수고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처음부터 희망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희망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희망이 길과 같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없던 길도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차곡차곡 쌓이면 탄탄한 길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함께할 때 희망의 주변을 맴도는 불확실한 안개는 사라진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은 사라지듯이 구경만 하는 희망 또한 쉽게 사라진다. 희망이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곳은 함께 가는 길 위다. 희망은 구경하는 대신에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희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법조칼럼

안전한 교통문화 도시 광주를 기대하며

최 은 영
광주지검 검사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엊그제까지 습했던 공기에 상쾌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 희망임지를 신청하면서 광주를 1지망으로 쓰고는 혹시 광주를 가지 못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시간을 지나 광주지검 전입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도 6개월이 흘렀다. 광주지검에 발령받고 첫 출근하던 날은 2월의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동안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지나 유난히도 무더웠던 뜨거운 여름을 견디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노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에서 6개월의 시간은 단순히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추억과 일들로 일상이 단단하게 채워졌던 것 같다. 짧은 기간 동안 이사도 한번 해서 삶의 터전이 남구 봉선동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바뀌었고, 출퇴근길 주말에 산책하면서 접하는 주변의 풍경도 조금은 바뀌었다.

광주에 오기 전 4년간 주말 부부를 하는 동안은 주말마다 이동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지 못한 시간만큼 보상할 이벤트를 만들어야만 할 것만 같아 항상 바쁘게 보내다 보니 임지마다 2년 동안이나 지냈음에도 그 지역을 느끼거나 알아갈 시간이 없었다.

광주에 오면서 드디어 주말 부부를 끝내고 함께 살게 된 지금은 그저 동네만 돌아다녀도 좋은 한가로운 시간이 되었고, 주말이 되면 남편과 함께 동네 주변을 걸어다니며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얼마나 있는지, 어느 마트의 과일이 신선한지, 주말에도 문을 여는 병원은 어디인지를 살피며 둘러보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주의 멋과 풍취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담양이나 순창 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황금연휴 기간이 되어도 차가 막히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지 않음에 감탄하며, 몇 년 전 연휴 때 서울에서 근교에 있는 남이섬을 5시간이 걸려 다녀온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광주지검 공판부로 오면서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실 풍경도 조금은 바뀌었다.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단출하게 이루어지는 형사부와 달리 한 공간 안에 8명의 검사가 모여 있다 보니 매일 매일이 활기차고 조금은 소란스러운 일상을 보낸다. 재판을 마치고 하나 둘 사무실로 모여들 때쯤 "선배님, 선배님, 오늘은요"로 시작되는 막내 검사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공판실에 있구나'라고 느낀다.

공판 중 항소심을 맡다 보니 음주나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과하다고 항소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마다 딱한 사정에 안타까우면서도 광주에서 운전 중에 위험한 상황을 겪고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2015년에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대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멋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장 광주에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라고 할 것이다.

광주에 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고 남은 시간이 더 많기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단풍철이 되면 생애 처음 내장산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광주를 떠나기 전 서석대에도 한 번쯤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 또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명 직원 같은데 낯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에 자책하며 광주지검 식구들 모두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리고 그 때쯤은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인정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새롭게 바뀌어있길 기원해 본다.

기 고

'택시운전사'와 5·18 기억의 공간

김 영 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중이다.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 1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두 집에 한 집 꼴로 영화를 본 셈이다. 놀라운 일이다. 5·18 광주에 대해 이토록 많은 국민이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대단하다.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연설과 유가족을 위로하며 포옹하는 장면은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1995년 11월 16일 전두환 노태우 구속 수감 이후 5·18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거기에 '택시운전사'는 5·18 진실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무한 확장시키면서 최근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행위와 공군 전투기 출격으로 광주시민에게 폭탄을 투하하려 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과 5·18 특별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로 5월 광주의 진실은 역사 속에 묻히는 줄 알았다. 더구나 10여년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역사는 후퇴되고 사방에서 왜곡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두환은 회고록까지 썼다. 자신은 광주학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1996년의 재판까지도 부인한 것이다.

역사왜곡의 절정 끝에 '택시운전사'의 등장은 오히려 새로운 진실규명의 출발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역사의 뒤 안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당시 쿠데타 세력과 군부, 그들과 결탁했던 관료들에 맞서 얼마만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면서 저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보냈건만 진실을 정면 부인하고 왜곡까지 하는 전두환을 그대로 둘 것인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 국민을 향해 폭격을 명령했다면 그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계속할 것인가?

지금 '택시운전사'는 많은 것을 묻고 있다. 아니 택시운전사를 본 촛불 국민이 묻고 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카메라에 담은 5·18 광주 현장'(5·18 특파원리포트)을 쓰며 "내 생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초의 엄청난 슬픔과 서러움이었지만,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이 역사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제 목격의 기억을 사실의 기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진실의 고백이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계엄세력, 그들을 비호했던 미국 정부, 그때 그들을 도왔던 관료들은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의 기록을 내놓아야 한다.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떤 화해와 용서도 있을 수 없음은 종교에서까지 말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를 진실의 고백기간으로 정해 모든 당사자들이 진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자. 고백성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자.

정부도 이번만큼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진상규명이 입으로만 하는 정치적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특검이 있듯 진상규명을 제대로 추진할 합당한 조직과 예산, 법률과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 광주시가 할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때 반짝하고 지나며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건 '택시운전사'를 만든 영화사와 서울시에 부탁하는 것이다. 영화 후속으로 5·18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기억의 문화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희생자는 물론 사회 전체가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문화 공간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현실이든 가상공간이든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다. 할 만하지 않을까?

社 說

검찰 헬기 사격 수사 전두환도 소환 조사하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을 통해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허위로 주장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지난 4월 고소장(사자명예훼손)을 접수하면서 광주지검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우선 수사는 조비오 신부 증언의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헬기 사격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2시 정도에 상공에서 헬기 소리와 함께 기관총 소리가 드드득 세 번 울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 쓴 사탄'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직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한 것이다.

헬기 사격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하던 당시 서울지검은 헬기 기총소사 여부도 조사했지만 '헬기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뚜렷한 피탄 흔적과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최근 확실한 물증이 나왔다.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3월20일 전일빌딩을 방문해 헬기 사격 탄흔을 살펴보기까지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헬기 사격도 사실로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한 만큼 검찰은 반드시 그를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 기준·범위 법제화로 혼란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에 3년치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했지만 기아차는 회사의 총 부담액이 1조 원 안팎에 달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사의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였다. 판단 기준은 노사 합의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 여부였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조원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악화를 근거로 노조원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아차의 경우 영업 이익과 24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지만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만 115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신의칙'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산업계의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無 等 鼓

독서

정호승 시인은 3년 전 '책과 삶'이라는 주제의 인터뷰에서 "모든 인간에게서 시(詩)를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했던 "모든 이에게서 신(神)을 본다"는 말이 연상된다. 시인은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일련의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뼛속까지' 시인이었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시인의 길을 걸어 왔다. 시를 써서는 온전히 밥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는 그렇게 45년 가까이 시를 붙들었다.

시는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언어예술이다. 문학의 가장 오랜 장르이면서 본질적인 예술 분야이기도 하다. 그 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언어다.

김성도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는 '언어인간학'에서 인류의 유일한 생존 조건으로 '언어'를 꼽았다.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신체 조건이 열등한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언어 사용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언어는 소통의 매개를 넘어 인간의 역사이자, 문명의 근간 자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가리켜 '존재의 집'이라 했으며,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곧 나의 세계의 한계'라는 말로 언어의 본원적인 특징을 꿰뚫었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책 읽기는 '존재의 집'을 튼실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콘베이어 벨트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에서 한가하게 독서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학주간 2017' 행사가 막이 올랐다. 7일까지 전국의 문학관과 문학전문책방 등에서 '문학, 감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작품 낭독회, 북토크쇼 등 독자가 참여하는 소통형 프로그램에 조점이 맞춰져 있다.

문학관이나 책방에 들러 책을 접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책에는 글쓴이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다. '모든 인간은 한권의 책'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올 가을에는 '모든 인간에게서 한 권의 책을 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사 회 2부	220-0652	디 자 인 실	220-0536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